

#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임지아\* · 최경희\*\*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 Shown in Costumes

Ji-Ah Lim\* · Kuyng-Hee Choi\*\* · Min-Ja Kim\*\*\*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8. 9 투고)

### ABSTRACT

Since the emergence of postmodernism, as interest in human has increased, human face image is being highlighted as one of the themes that are addressed the most.

Making the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 shown in costumes the subject matter, this thesis examines the internal values immanent in the images in more depth and understands them based on the Panofsky'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schem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signer's purposes and even their unconscious intention through iconological interpretation of faces shown in the fashion and images shown in human image, and further to present basic materials in the fashion design.

This research used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and used Panofsky's iconological interpretation theory as the scheme in order to interpret the symbolic significance implied in the images.

The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 shown in costumes were classified into six types through historical reviews, and based on the types the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 shown in the fashion since the 20th century were examined.

The iconological analysis of the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 shown in costum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ypes according to historical reviews showed parodies, cultural identity, commercial use, eroticism, respect for heros and its fiction. This study has found that all such things finally return to humanism that humans should be valued and loved the most.

Key words: costume(복식), images of faces and individuals(얼굴·사람 이미지), types of iconological interpretation(유형별 도상학적 해석)

## I. 서론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사람의 몸은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는 테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많은 예술가에 의해 끊임없이 표현되어왔으며 이미 회화·조각 등 여러 장르에서 차용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이미지는 20세기 후반부터 후기 자본주의 문화를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 절단과 분해, 해체 등 파편적인 개념을 수용함에 따라 사람의 몸 및 신체의 각 부위의 이미지가 학문 및 예술·문화<sup>1)</sup>에서의 주제로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내·외면적 현상의 표현으로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며 메시지의 전달성이 강한 얼굴 이미지의 차용은 현대패션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은 사람의 몸을 재현하고 그 자체를 옷으로써 표면을 나타낸다는 맥락하에 얼굴·사람 이미지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주로 꽃과 나비, 새와 같은 동, 식물무늬가 많이 표현이 되어왔지만, 1930년대 스키 아파렐리(Elsa Schiaparelli)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작품에 눈과 입술과 같은 인체의 부분적인 이미지에 '정의', '에로티시즘'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패션의 소재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앤드워홀(Andrew Warhola)의 마를린먼로(Norma Jean Mortensen)와 엘비스 프레슬리(Elvis Aron Presley)와 같은 대중스타들의 얼굴 이미지는 미국, 팝아트,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중문화와 같은 이미지로 대중들의 머릿속에 인식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의 폐단으로 인해 등장한 휴머니즘은 인간에 관한 재조명을 증폭시켰으며, 20세기의 그래픽 혁명은 증폭된 이미지의 동조현상이 발생하는 틀을 제공하였고, 기술력의 발전이 패션에 있어 얼굴·사람 이미지의 표현을 쉽게 함으로써,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또한, 현대에 있어 복식은 신체를 보호하는 도구적 기능보다 치장과 장식을 함으로써 복식을 통한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기능, 즉 표현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복식의 미적 가치 및 미적 경험을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sup>2)</sup> 따라서 사적고찰을 통해

이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연구로 국내의 패션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의 얼굴·사람 이미지를 복식에 표현된 이미지로서가 아닌 복식의 형으로써 연구하거나<sup>3)</sup> 시각적인 접근 물로서의 대상으로만 분석하거나 현재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다.<sup>4)</sup>

본 논문에서는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의 이미지를 연구의 주제로 하여, 이들 이 지니는 내적 가치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며, 파노프스키(E. Panofsky)의 도상학적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의지와 디자이너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의도까지 파악함과 동시에 패션디자이너의 기초 자료를 설정하는 데 있다. 또한 미래의 한국적 패션 디자인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므로 사적 고찰과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얼굴·사람 이미지에 관한 도상학적 해석에서도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범위는 얼굴·사람의 유형과 이에 따른 연상 의미를 범주화를 위하여 사적 고찰로서 이집트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미술사, 복식사, 철학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휴머니즘이 대두하였으며, 패션의 영역까지 확대된 시점인 1980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최근 27년간의 컬렉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복식사 자료들과 함께 COLLEZIONI 컬렉션북과 인터넷 자료로서 [www.firstviewkorea.co.kr](http://www.firstviewkorea.co.kr) 을 참고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사람 대한 용어를 정의 내린다.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모티프의 연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모티프의 사적 고찰을 통해 이미지의 유형과 이에 따른 연상 의미

를 범주화하고자 한다.

넷째, 198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모티프의 유형에 따른 도상학적 해석을 하고자 한다.

## II.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정의

최근 사람의 몸은 문화적 담론에서 그 화두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의 몸과 얼굴은 단순한 생물학적 유기체를 넘어선 심리적·이념적·역사적 의미까지도 내포한다. 이러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복식 조형작업 또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그 이상의 다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얼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상하로는 이마에서 아래턱까지, 좌우는 양쪽 귀 사이의부분에 해당하는 머리의 정면을 의미하는 말로서 영어로는 'face' 라고 한다. 사람의 얼굴은 안면이라고도 하며, 2개의 눈썹을 따라 협골궁에서 외이공을 지나 하악골의 아래 가장자리를 두르는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sup>5)</sup> 얼굴 이미지는 자기 표현성이 있어서 마음속에 새겨진 이미지에 따라 선택되고, 그 대상에 반응하는 미적 감각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로서 표현되는 인물들의 행동표현이나 표정 등은 인물 내면의 감정을 이끌어내 인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sup>6)</sup>

## III.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

작품의 의미나 모티프를 다루는 미술사의 한 분야인 도상학과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다루는 도상학적 해석은 조형예술 작품의 해석에 있어 학문적인 접근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비알로스토키(J.Bialostocki)는 도상학을 '의도적 도상학(intended iconography)'과 '해석학적 도상학(interpretative iconography)'로 구별한 바가 있는데,<sup>7)</sup> 근대 미술사학에서의 이코놀로기라는 것은 바로 해석학적 도상학을 의미한다. 의도적 도상학은 보통 개개의 도상을 텍스트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 기술하여 역사적 관련을 근거로 그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료 분석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해석학적 도상학은 개개 도상의 깊은

상징적 의미와 혹은 다른 도상과의 상호작용과 국가·시대의 신학적·철학적·정치적인 관련까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 이러한 해석학적 도상학을 'Ikonologie'라는 종래의 명칭으로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바르부르크(Emil Gabriel Warburg)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전개된 것은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를 통해서이다. 파노프스키는 미술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단순한 주관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술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과 형식에만 주목하고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입장도 지양했으며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 즉, 파노프스키는 미술작품의 주관과 객관의 조화, 나아가 정신과 감각, 사고와 지각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술양식에 대한 통찰로부터 파노프스키는 소여된 도상의 형상화된 의미를 해명하는 구체적인 도상해석학의 방법을 발전시키게 된다. 1955년 제출한 도표에서 파노프스키는 예술작품의 세 가지 층위를 말하고, 그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방법을 도상기술학 이전 단계인 기술(description), 도상기술학적 분석(analysis), 도상해석학적 해석(interpretation) 등의 세 가지 수준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지만, 파노프스키는 이 세 가지 접근방법이 실제 작업에서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과정 속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작품의 해석에 이르기 위한 수준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수준은 작품에 재현된 대상들이나 사건들에 익숙함을 조건으로 하는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인 도상기술학적 분석은 특수한 테마나 개념들에 익숙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학적, 혹은 문헌학적 근원에 대한 익숙함을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도상해석학적 해석에는 문학적 근거를 통해 전달되는 특수한 테마들이나 개념들 이상의 그 무엇이 요구되는바, 그것은 모티프들의 선택이나 제시, 이미지들 이야기들 알레고리들의 산출과 해석의 바탕에 있는 기본적 원리들의 파악에 의해 이루어진다. 파노프스키는 이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단 의사의 능력에 필적하는 심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종합적 직

〈표 1〉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해석의 틀

해석대상	해석 행위	해석 도구	보완재(전통의 역사)
1. 일차적인 또는 자연스러운 주제 (A) 사실 의미 (B) 표현 의미	전·전도상학적 단계의 작품 서술(형태 분석)	일상경험(대상이나 사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양식사(서로 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대상이나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의 과정 투시)
2. 이차적인 또는 관습적인 주제나 그림, 일화, 알레고리 가 이루는 세계	도상학적 분석	문헌기록에 대한 지식(특정 테마나 관념을 잘 익힐 것)	유형사(서로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특정한 주제나 구성기획들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을 매개로 해서 표현되는가의 과정을 투시)
3. 본래적 의미나 의미내용. 상징가치로 이루어지는 세계	도상해석학적 해석	종합 직관(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들을 잘 파악할 것) 해석자 개인의 심리나 세계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문화적 징후의 역사 또는 보편적 의미의 상징(서로다른 역사적 조건 가운데 인간 정신의 본질적 경향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나 구성 기획들을 매개로 표현되는가의 과정을 투시)

관(synthetic intuition)'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종합적 직관은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 아래서 인간 정신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성향들이 특수한 테마들이나 개념들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파노프스키는 이 표현들을 카시리의 상징들 또는 문화적 징후들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sup>8)</sup>

파노프스키가 제시한 해석틀은 조형예술 작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미들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개념들의 상대적 명료성, 체계의 단순성은 그가 제시한 해석틀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sup>9)</sup>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면 〈표 1〉<sup>10)</sup>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 IV. 사적고찰을 통한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의 유형분류

얼굴·사람 이미지의 유형과 이에 따른 연상 의미를 범주화를 위하여 이집트 시대부터 20세기까지의 미술사, 복식사, 철학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하여 복식에 나타난 사람·얼굴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을 한 결과 6가지의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사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를 유형화하고 각 이미지 범주별로 도상학적 해석을 하는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사적 고찰에 의한 유형분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앵그르의 작품과 같은 세계적인 명화나 유명한 소설의 삽화 이미지를 차용한 복식의 도상학적 해석을 근거로 하여, 20C 이후 패션에서 보여 지는 고미술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의 차용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표 2〉를 통해 요약해 보았으며, 세대를 넘어서 전 인류에게 익히 알려지고 회자되고 있는 명화에 나타난 얼굴·사람이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인간의 얼굴·사람 이미지는 그 사회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이다. 유럽복식에 나타난 일본민화를 통해 자포니즘이라는 시대적 배경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알 수 있으며, 당기에 시문된 동자의 모습의 도상학적 해석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성과 정체성을 알 수 있었다. 〈표 3〉을 통해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20세기 이후 패션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얼굴·사람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포도와 동자의 모티프가 새겨진 대관치마나 무당의 부채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해 본 결과 예로부터 사람의 형상을 빌어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화·종교적 이미지로서 가장 먼저 메두사의 머리를 브랜

〈표 2〉 고미술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의 유형

분석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로코코 양식의 삽화      앵그르의 '라 수르스'</p>
형태분석	얼굴 이미지의 전면프린트, 전원적인 분위기, 여인의 나체
도상학적 분석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차용된 앵그르의 '라 수르스', 허리의 곡선 강조, 에로티시즘, 비너스의 탄생,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차용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미소, 신빙성 'The Adventures of Telemachus, the SON of Ulysses'의 삽화 고가의 명화, 세기의 명화, 성스러움, 패러디
도상학적 해석	유명한 작품을 차용함으로써 원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파워가 지닌 효과를 이용, 패션의 소재로 이용함으로써 원전의 가치를 하락시킴
이미지 유형	고미술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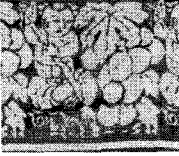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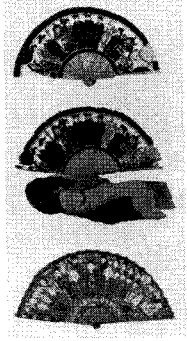



〈표 3〉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자포니즘 영향의 부채1      자포니즘 영향의 부채2      신라의 수막새기와      향합속의 여인      땡기에 시문된 동자</p>
형태분석	부채에 그려진 풍경화, 주머니속의 여인, 얼굴무늬 기와, 간결한 선으로 표현 된 두 동자
도상학적 분석	전원적인 분위기, 시누아즈리, 자포니즘, 한복을 입은 여인, 신라인의 얼굴을 담은 기와, 땡기에 시문된 선적으로 표현된 동자
도상학적 해석	얼굴·사람 모티프를 통해 그 문화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유형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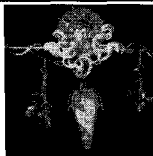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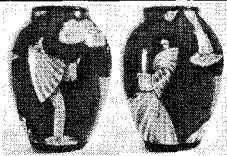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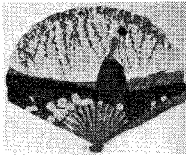
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차용한 베르사체가 있다. 이는 보는 사람은 모두 돌로 만들었다는, 인간의 형상이지만 신화적인 파워를 상징하는 모티프로 현대패션의 과감하고 강렬하면 뇌세적인 아름다움을 대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화·종교적 이미

지가 현대패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표 4〉의 유형을 바탕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넷째, 아르누보양식의 여인의 몸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곡선, 아르테코양식의 장신구에 나타나는 여인의 형상과 일본의 사진작가 아라키노부요시의 여인은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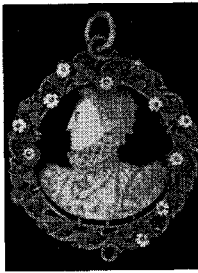
<표 4> 신화·종교적 이미지 유형

분석대상				
				
형태분석	대칭구조, 사람과 사자, 4두마차와 사람, 전쟁, 한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의 무리, 핫핑크와 금색스 핑글의 얼굴, 포도송이와 동자, 부채에 그려진 원색복장의 사람들			
도상학적 분석	콧턱 직물, 사자 사냥, 사자와 싸우는 사람들, 샤를마뉴대제의 대관식예복, 대관치마의 금박, 무당의 부채에 그려진 신령님들.			
도상학적 해석	신화나 종교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파위는 그 모티프로서도 위력을 발휘하며, 이를 주술적이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미지 유형	신화·종교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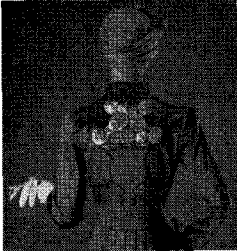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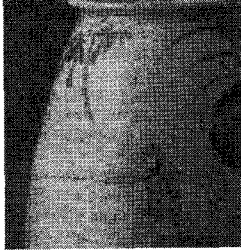
<표 5>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미지 유형

분석대상				
				
형태분석	여성의 머리를 모티프로 한 장신구, 어깨에 수놓아진 여인의 옆모습, 시퀀, 흐르는 듯한 머릿결, 부채에 그려진 여인, 도자기에 그려진 여인, 가슴부분 프린트, 여인의 사진, 남자의 상반신			
도상학적 분석	아르누보 양식의 스토마커, 스키아파렐리와 장콕토의 합작, 아르테코 장신구들, 이세이미야케, 아라키노부요시와 그의 사진작품,			
도상학적 해석	시대의 새로운 사조로 자리 잡은 에로티시즘			
이미지 유형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미지			

〈표 6〉 파위상징체계로서 이미지 유형

분석대상		
	성 테오도르	엘리자베스 1세
형태분석	흑백의 사람 상반신, 펜던트 안의 여인의 상반신	
도상학적 분석	성 테오도르, 이집트 초상화와 유사한 형식, 이집트 직물, 엘리자베스 1세의 모습, 영국제국의 태양	
도상학적 해석	영웅이 지닌 파위를 기억하고, 그 영향을 받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	
이미지 유형	파위상징체계로서 이미지	

〈표 7〉 사회적 이슈로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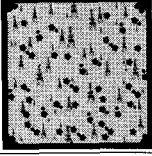
분석대상		
	마주보고 있는 사람	청화 백자 속 동자
형태분석	마주보고 있는 얼굴, 키스, 분홍색장미 장식, 한가로운 낚시 풍경, 즐겁고 여유로운 표정의 어린 소년	
도상학적 분석	스키아파렐리와 장폭토, 르사주(Lesage)자수, 조선시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어린동자	
도상학적 해석	사람에게는 사랑과 따스함이 필요하고 휴머니티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미지 유형	사회적 이슈로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	

에로티시즘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에로티시즘이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기반에서 발생하는 인간에게 금지되어온 욕망에 대한 환유이며, 이는 주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욕망은 초현실주의자들의 사람에 대한 파편적인 이미지의 왜곡과 강조를 통해 복식에서 차용된 것을 시작으로, 20C 이후 패션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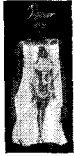





그 사용이 범람하고 있다. 〈표 5〉를 통해 정리한 유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다섯째, 성 테오도르의 형상과 엘리자베스 1세의 모습을 조각한 펜던트를 통한 해석의 결과를 근거로 영웅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의 위력은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표 8> 고미술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거울보는여인	절규	고구려의 여인
해석대상			
형태분석	한복입은 여인 서양의 자켓, 한국적인 디테일	빨간입술, 창백한피부, 절규하는 사람 충 천연색.	스카프, 반복되는 여인과 꽃의 이미지, 핑크와 블랙의 대비
도상학적 분석	고가의 명화, 세기의 명화 김홍도의 '거울보는 여인' 패러디 에로티시즘, 한국문화의 정체성	고가의 명화, 세기의 명화 몽크의 '절규' 패러디, 트랜스젠더 붉은 입술, 하얀 피부, 에로틱, 유희성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는 여인의 이미지, 선조들이 예술의 소재로 써 애용한 매화 상업적인 용도의 소재 한국문화의 소중함과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
도상해석학적 해석	원전에 대한 존경심, 소유욕, 유명세에 대한 역작용으로 가치를 깨어보려는 의도, 아이러니, 유희성		

<표 9>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의 도상학적 해석

	원시미술 이미지	아프리카 이미지	인도 이미지	한국 이미지	중국 이미지	일본 이미지	미국 이미지
해석대상							
형태분석	비사실적 기하학적 선 자극적인 색채	흑백의 마른 여성, 여러겹의 목걸이	코걸이, 빈디 등의 악세사리	쌍검무를 추는 여인	풍속도	여성의 전신	붉은색과 녹색의 보색대비
도상학적 분석	고대 조각상 원시신앙	아프리카 복식의 여성	인도 복식의 여성	한국 복식의 여성	중국 복식 사람들의 풍속도	일본복식의 여성	자유의 여신상 강한 보색대비 옵아트, 팝아트
도상해석학적 해석	디자인 모티프 원시문화의 정체성	아프리카 문화의 정체성	인도 문화의 정체성, 관용성, 보수적.	한국 문화의 정체성, 자연스러움의 미학, 여유 공간	중국 문화의 정체성	일본 문화의 정체성	미국문화의 정체성 자유, 사랑 테러의 공포

‘실득력’에 있는데 이러한 가공할만한 실득력으로 인해 이미지는 조작되고 소비된다. 역사상 대중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은 그들 얼굴의 프린트

로 인해 현대에서도 그들의 파워는 유효하며, 현대사회에서 영웅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들의 상징적인파워가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표 6>



을 통해 정리한 범주를 근거로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로서 얼굴·사람 이미지를 차용하는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키아 파렐리의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티프나 조선시대 청화백자에서 느긋하게 낚시를 하는 동자의 얼굴을 사랑과 휴머니즘의 유형으로 해석하였으며, <표 7>로 정리하였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의 폐단으로 인한 몰신주의 팽배는 최근에 이르러 결국 인간애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간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얼굴·사람 이미지로서 어떤 식으로 차용을 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적고찰을 통해 분류한 6가지 얼굴·사람 이미지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해 각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 V. 20C이후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의 유형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앞서 사적고찰을 통해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모티프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모티프의 고찰을 통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먼저 <표 8>을 통해 정리한 고미술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의 차용에 대한 해석의 결과, 목판의 등장으로 미술에 있어 기술적인 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손이 담당해 왔던 예술적 의무를 이제는 렌즈를 투시하는 눈이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 그 요소는 예술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예술작품이 지니는 일회적 현존성이다. 현대의 대중은 복제를 통하여 모든 사물의 일회적 성향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즉 모사와 복제를 통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상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로부터 떼어내는 일, 다시 말해 분위기를 파괴하는 일은 현대의 지각작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sup>11)</sup> 이러한 프린트기술과 사진기술의 발달에 의한 무한 조




작과 복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초고가의 가치를 지닌 세계적 명화를 패러디 하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금 세기의 명화를 바로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소유욕과 동시에 유명세에 대한 역작용으로 그 신빙성을 깨어보려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얼굴·사람 이미지는 해석을 통해 <표 9>와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간의 얼굴·사람 이미지의 표현은 문화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형적 상징성을 갖는다.<sup>12)</sup> 개인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한 민족의 얼굴과 모습에는 그 민족의 공통된 심성과 마음상태가 특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즉, 대표되는 조형적 상징성은 역으로 문화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가 있게 한다. 특히 복식은 모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표현이며, 그들 생활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산물이므로, 복식을 착용한 얼굴·사람 이미지는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를 나타내 주는 단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화와 종교는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제를 초자연적 존재나 원리에 연결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성스러운 존재의 행위와 힘의 표현으로 인간의 일상행동을 규제해 왔다. 근대 사회에서는 종교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 대중문화 내에서 패션에 차용된 신화·종교적 이미지를 해석한 결과 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미지를 이용한 대중적인 소비의 선동을 유도하는 상품으로 조작되고, 패러디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표 10>을 통해 정리 하였다.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입술, 가슴, 목, 허리, 치아, 혀 부위 이미지는 에로티시즘과 연결되어있는 동시에 현대 패션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 현대에 와서 육체 및 성의 해방을 표방하면서 육체의 재발견이 행해졌으며, 1930년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의해 시작된 성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사람의 몸에 대한 파편적인 시각은 오늘날에 이르러 사람의 육체와 복식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에로티시즘적인 이미지의 범람을 야기하였고, 20세기 들어와 인류가 성취한 또 하나의 사고로서의 섹시즘(sexism)은 이

〈표 10〉 신화·종교적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	불교의 이미지
해석대상			
형태분석	금색 스펅글 사람, 말 환상적인 분위기	상반신 전면예 프린트, 가느다란 실, 눈빛	다이트한 원피스 합장하는 모습 온화한 이미지
도상학적 분석	그리스신화 태양마차 아폴로 전면 위치	성모상, 그리스도, 기독교적 주제 신성함 핑크, 가슴에 위치한 프린트,	불교, 비비안탐, 중국 원피스 전면예 프린트 동양적 모티프
도상해석학적 해석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역사성과 권력을 맺고 있던 이미지는 약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비하고 환상적인 특성은 강화되어지는 양면성, 상품성으로 이용		

〈표 11〉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미지의 도상학적 해석



해석대상	인체부위				여성의 몸		여성의 얼굴
							
형태분석	손 빨간색, 위치,	입술, 치아 혀 빨간 립스틱	입술,치아, 벌린 입 붉은 립스틱	입술, 치아, 벌린 입, 붉은 립스틱	여성의 누드, 빨간 립스틱 시선	토폴레스, 웨이트리스 빨간 립스틱 에로티시즘	다홍색 벌린입 시선 붉은 립스틱
도상학적 분석	에로티시즘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 초현실주의	에로티시즘 에로틱의 도 구	에로티시즘 편업걸, 유희 성	마릴린 먼로 앤디 워홀, 에로티시즘
도상해석학적 해석	에로티시즘,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새로운 사상						

제 아름다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11〉.

패션에서 있어 상당히 자주 보여지는 파워의 상징체가 되는 사람의 이미지를 해석한 결과〈표 12〉, 현대인의 물질주의 사상, 그리고 미디어와 상업주의의 결합으로 생산된 영웅 이미지는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는 듯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본질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그들의 외향적인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즉, 현대의 대중(mass)들은 이들의 창조된 외향적 이미지를 모방함

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영웅과 동일시하려는 의도를 지니지만, 결국 실존 영웅이 아닌 공허하게 반복되는 ‘이미지’의 산물인 것이다. 결국 유명인을 세속적인 여성의 패션에 차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실존하지 않은 영웅의 허구성을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이슈로서 차용한 얼굴·사람 이미지는 결국 ‘가장 빠른 자만이 생존한다(Survival of the Fastest)’는 원칙하에 컴퓨터의 속도에 맞추기 위한 삶이 지배적이었던 시대를 뒤로하고 21세기는 사랑으로, 지친 인간을 감싸 안으려는 시대임을 전달하고 있다 〈표 13〉.

〈표 12〉 파워상징체계로서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p>해석대상</p>	<p>모택동, 체게바라, 밥말리 원더 우먼, 제임스 딘, 다이애나 비</p> 	<p>톰포드, 칼 라가펠트, 요지 야마모토</p> 
<p>형태분석</p>	<p>얼굴 이미지가 정면에 프린트된 티셔츠 가슴전면의 여자의 전신프린트, 가슴에 남자의 상반신 프린트 상의의 유니온 잭과 함께 하의에 프린트된 여성의 얼굴, 흑백 이미지</p>	<p>미니원피스의 전면을 차지하는 얼굴 프린트</p>
<p>도상학적 분석</p>	<p>모택동, 체 게바라, 밥 말리, 역사적인 인물들, 혁명가, 가수, 영웅적인 지도자 원더우먼, 제임스딘, 다이애나, 우상 혹은 영웅의 이미지</p>	<p>톰포드, 칼 라가펠트, 요지 야 마모토 패션계의 슈퍼스타 유희성</p>
<p>도상해석학적 해석</p>	<p>우상에 대한 존경, 영웅이미지의 허구성, 허상, 상품화 존경하는 인물을 패션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가치전락과 함께 유희성을 나타낸다.</p>	

〈표 13〉 사회적 이슈로서 얼굴·사람 이미지 차용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분석대상	인간애	북한의 인권유린	반전, 낙태반대		
<p>형태분석</p>	<p>흑백의 이미지 극도로 사실적인 이미지 수공예</p>	<p>흑백의 이미지 인간의 형상 속의 인간</p>	<p>팝 적인 칼라 주먹 이미지 NOT WAR 흑백의 이미지 사실적인 사진</p>	<p>배 부분에 위치 한 아기 프린트 MAD IN LOVE 핫핑크</p>	<p>흑백의 이미지 사실적인 사진 배 부분에 위치 한 태아 프린트</p>
<p>도상학적 분석</p>	<p>포용하는 모습의 사람형상 사람의 모습 속에 사람의 형 상</p>	<p>도식화된 김정일의 모습안에 노동자의 모습</p>	<p>주먹 자극적인 색감 핑크</p>	<p>가난아기의 모습 핫핑크 핑크</p>	<p>화난얼굴의 태 아의 모습</p>
<p>도상해석학적 해석</p>	<p>사랑이 필요하다는 외침 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인간을 감싸 안으려는 마음 수공예의 가치 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p>	<p>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 휴머니즘</p>	<p>전쟁반대, 낙태반대 인간의 사랑 갈구, 휴머니즘, 역설적 표현</p>		

##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파노프스키의 도상학과 도상 해석학 이론을 바탕으로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틀을 마련하고, 사적 고찰을 근거로 한 유형분류에 대한 도상학적인 해석을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하여 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미지가 지니는 내적 가치에 관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복식에 나타난 얼굴·사람 이미지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의지와 디자이너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의도까지 파악함과 동시에 패

선디자인의 기초 자료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해석의 결과 패러디와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상업적 이용, 에로티시즘, 영웅에 대한 존경심과 허구성과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휴머니즘으로 귀결된다는 결과를 내릴 수 있었으며, 이미지의 해석에 있어 사고와 지각이 융합된 해석을 시도 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들을 통일시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주관과 객관의 조화, 나아가 정신과 감각, 사고와 지각 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던 학문적 요구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파노프스키가 설계한 해석의 틀이 실제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그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파노프스키의 이론과 이를 근거할 수 있는 지식들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2005년 이상 문학상 대상 수상작인 몽고반점(한강)은 아름다움의 극단을 삶과 죽음을 동시에 갖들인 사람의 몸을 바디페인팅과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해 사람의 몸을 내·외적으로 섬세하게 관찰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표정관리주식회사(이만교)에서는 인간의 얼굴표정이 갖는 중요성과 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표현의지를 넘어서 상업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다.
- 2)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서울: 교문사, p. 197.
- 3) 이재당 (1998).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인물표현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혜정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아이콘화에 관한 연구. 복식, 56(3).
- 5) 세계 대박과사전 (1998). 서울: 동서문화(제 18권), p. 10556.
- 6) 박용숙 (1987). 현대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집문당, pp. 18-19.
- 7) Philip P. Wiener (1973).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 524.(장미진 (1990). 도상해석학의 문제-파노프스키와 제들май어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사학Ⅱ, p. 174에서 재인용)
- 8) 박일호 (2003).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과 원근법 이론. 미학, 제36집, pp. 210-211.
- 9) 위의 책, pp. 9-10.
- 10) Ekkehard Kaemmerling, Ikonographie und Ikonologie

이한순 역 (1997).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서울: 사계절출판사, p. 160.

- 11) Walter Benjamin, Ich packe meine Bibliothek aus, 반성환의 역 (1983). 발터벤야민의 문예론. 서울: 민음사, pp. 199-202.
- 12) 조준영 (1998). 한국 전통 그림 무늬 연구. 디자인 연구, 6, p. 20.